



19일 오후(현지시간)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에서 한국의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 골로 황선홍을 넘어 역대 A매치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손흥민 A매치 51호골’ 홍명보호, 팔레스타인과 또 무승부

월드컵 예선 5연승 불발...6경기 무패 행진·B조 선두로 A매치 마감  
김민재 백패스 실수 빌미 실점...손흥민, 황선홍 넘어 득점 순위 2위

홍명보호가 손흥민(토트넘)의 A매치 51호 골에도 팔레스타인과 무승부에 그치며 연승 행진이 4경기에서 끊겼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 원정 경기에서 김민재(원전)의 백패스 실수로 먼저 실점했으나 곧이어 손흥민이 동점 골을 책임지면서 팔레스타인과 1-1로 비겼다.  
손흥민은 한국 선수 A매치 통산 득점 순위에서 황선홍(50골)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을 넘고 단독 2

위로 올라섰다.  
8골을 더 넣으면 이 부문 1위(58골)인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을 넘어선다.  
3차 예선 1차전 홈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긴 뒤 4연승을 달린 홍명보호는 ‘리턴 매치’에서도 승리 사냥에 실패했다.  
6경기 무패(4승 2무) 행진은 이어간 홍명보호는 여전히 B조 선두(승점 14) 자리를 지키며 2024년 A매치 일정을 마쳤다.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요르단, 3위 이라크(이상 승점 8)와 격차는 승점 6으로 여전히 크다.

한국은 2025년 3월 A매치 기간 오만, 요르단을 상대로 치를 흠 2연전을 통해 본선행 조기 확정에도 전한다.  
3차 예선 1~2위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며, 3~4위는 4차 예선에 진출해 북중미행 경쟁을 이어간다.  
승점 3을 쌓은 팔레스타인은 5위로 올라서며 4차 예선행 희망을 이어갔다.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열려야 했던 이 경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탓에 암만에서 열렸다.  
양 팀 선수들은 전반전 킥오프에 앞서 하프라인에 도열해 팔레스타인 전쟁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은 전반 12분 만에 센터백 김민재의 백패스 실수로 선제 실점했다.  
김민재가 상대 선수와 경합하다가 뒤로 넘긴 패스

가 너무 짧았고, 조현우가 황급히 달려 나왔으나 팔레스타인 자이드 쿤바르가 슬라이딩하며 공을 소유한 뒤 지체 없이 오른쪽 슈팅을 빈 골대에 넣었다.  
홍명보호는 불과 4분 뒤 동점 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한국 선수 A매치 통산 득점 순위에서 황선홍(50골)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을 넘어 단독 2위로 자리매김하는 ‘51호 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왼쪽에서 이명재가 넘긴 패스가 이재성의 논스톱 침투 패스로 이어졌고,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손흥민은 반대편 골대 구석을 노리는 오른쪽 슈팅으로 득점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세 선수의 패스와 침투 앞에 팔레스타인 수비진은 속수무책이었다.  
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박용우가 헤더로 골대를 갈랐으나 앞선 상황에서 한국 선수가 파울

을 범했다는 심판 판정에 득점이 인정되지 못했다.  
후반전 한국은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 듯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지 못했다.  
후반 7분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어 오세훈이 헤더로 열린 패스를 황인범이 오른쪽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이 크로스를 맞고 나간 뒤로는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한동안 없었다.  
외려 팔레스타인이 강하게 부딪치며 득점 기회를 모색했다.  
후반 25분 오다이 다바그가 타메르 세암과 이대일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 지역 정면으로 들어가 슈팅까지 연결한 것이 다행히 골대를 많이 벗어났다.  
한국은 후반 35분 황인범의 톱패스를 문전으로 침투한 손흥민이 골대로 집어넣어 결승 득점을 올리나 싶었으나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 광주 서석고, 전국검도대회 단체전 우승...전국대회 3관왕

서석중 단체전 준우승

광주 서석고등학교 검도부가 19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마무리된 ‘제41회 추계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남고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이번 우승으로 올해 전국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앞서 서석고는 지난 5월 제7회 대한검도회장기, 지난 7월 제27회 용인대총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서석고는 이번 대회 단체전 4강에서 전북 정읍고를 2-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경기 퇴계원고를 만난 서석고는 선봉 서규원이 상대 김태환을 시작으로 2위 오승준, 중견 강현우가 모두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어 부장 정우민이 이경빈에 2-1 승을 거둔 뒤 주장 이정환이 최현욱에 0-1 패하면서 스코어 1-1, 포인트 2-2 동점이 됐다.  
이후 대표전에서 이정환이 최현욱을 상대로 손목치기로 승리하며 서석고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강산 감독 교사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송전국 교장선생님의 덕분에 올해 더 좋은 성적을



광주 서석중과 서석고 검도부 선수단이 제41회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석고는 이번 대회에서 남고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고, 서석중은 중등부 단체전 준우승을 기록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거둘 수 있었다. 우리 선수들 모두 힘든 훈련을 잘 따라주고 모든 면에서 매우 성실한 생활로 임해준 덕에 1978년 서석고 검도부 창단 이래 단체전 첫 3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남태윤 지도자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다. 이 선수들이 한 해 세 번의 단체전 우승을 만들어줘서 너무 기쁘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에서 만나 패했던 전북을 상대로 이번 대회 4강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서 기쁨이 두 배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서석중 검도부는 상인전중을 3-1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전북 익산중에 1-3으로 제 단체전 준우승을 이뤘다. 육하준은 결승에서 박효관(상인전중)을 2-0으로 꺾고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유해란, LPGA CME 챔피언십 코다와 대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 가운데 올해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뽐낸 유해란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첫날부터 세계랭킹 1위 벨리 코다(미국)와 대결한다.  
20일(한국시간) 발표된 대회 1라운드 조 편성을 보면, 유해란은 오는 22일 오전 2시 35분 1번 홀에서 출발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CME 글로벌 포인트 랭킹 순

으로 1라운드 조를 편성했기 때문에 랭킹 1위 코다와 2위 유해란은 자연스럽게 출전 선수 60명 가운데 맨 마지막 조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치게 됐다.  
컷이 없는 대회라서 2라운드부터 조 편성은 성적순으로 바뀐다.  
코다는 올해 7승이나 올리고 413만달러를 벌여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유해란은 한 차례 우승에 상금은 280만달러로 뒤지지만, 이번 대회 우승 한 방이면 상금왕에 오를 수 있다. /연합뉴스

## ‘동호인 체육축제’ 영광군생활체육한마당

23~24일 영광스포티움

영광군민의 건강 증진과 동호인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생활체육한마당이 펼쳐진다.  
오는 23·24일 ‘제27회 영광군생활체육한마당’이 영광스포티움을 포함한 종목별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영광군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궁도·게이트볼·농구·배드민턴·축구·탁구·테니스·야구 등

총 19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2000여명의 영광 체육동호인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22일 사전 경기로 치러지는 배구 대회로 생활체육한마당 열전이 막을 올리며, 개회식은 23일 오전 10시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대회는 체육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조조선선유조협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